metro
메트로 2012년 12월 12일 수요일 제2629호 www.metroseoul.co.kr

Sports p/22

괴물에 옷 입혀준 매직존슨

"바꿔줘" 개콘 정여사 빰친 블랙컨슈머

NEWS p/02

얼굴 축소 마사지 받다 어금니 파열

NEWS p/03

알뜰족 '리퍼상품 득템' 삼만리

"한푼이라도 아끼자" 혼수까지 진열품 선호
싼 물건 찾으려 중고품 사이트 1000만명 북적

"이거 한번 빠지면요. 단 거 못 사요."

직장인 유영곤(33)씨의 스마트폰에 '띠링' 하고 알림 메시지가 뜬다. 찾고 있던 유모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등록됐다는 소식이다. 유씨가 첫 딸은 위해 사려는 유모차는 중고 상품. 160만원대 유모차를 절반 값도 안 되는 70만원 선에 사서 2년 정도 쓰다 되팔 생각이다. 유씨는 "육아용품은 아이가 금세 자라 쓸모없어졌거나 여기저기서 선물을 받다 보니 필요없게 돼 포장도 뜯지 않은 중고 제품이 많아 '득템'하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말한다.

허름하다, 궁색하다 같은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다. 생계형으로 취급받던 중고 시장이 '가치 소비' 바람을 타고 합리적인 구매 스타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남이 쓰던 게 찜찜해서', '남 보기에 부끄러워' 중고를 기피하는 모습은 찾기 힘들다. 가장 큰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중고 거래 커뮤니티의 경우 996만 명이나 정처 정보를 나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제품군은 따로 있다. 우선 사용 기간이 짧아 회전율이 높아야 한다. 육아용품이 대표적이다. 서울 광화문과 종로에 자리한 중고서점에는 동화책과 어린이 전집을 사려는 부모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특성 벼룩시장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도 금방 커버려 못 입게 된 아이 옷과 장난감들이다.

유행이 빠르지만 가격이 만만찮은 디지털 제품과 의류도 중고 시장을 꽉 메우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 G마켓이 최근 한 달간 매출을 분석해 지난해와 비교한 결과 디지털카메라와 MP3플레이어는 286%, 휴대전화는 207%나 매출이 뛰었다. 다른 계절보다 옷값이 비싼 겨울 패딩과 두툼한 외투를 찾는 이들로 남성 의류는 4배 가까이 더 팔렸다.

옥션에서도 중고 가전이 주로 거래되다 최근 중고 의류 잡화 물량이 몰리는 중이다. 한파에 빠듯한 이 패딩 점퍼를 싸게 사려는 이들이 많다. G마켓 디지털실 김석훈 이사는 "신제품 출시 속도가 빨라지면서 제품 교체 주기가 짧아진 데다 불황으로 중고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 최근 아예 중고 매입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오늘 첫 자율휴무 – "둘째·넷째 수요일은 문 안엽니다" 전국 대형마트가 첫 번째 자율휴무에 들어서는 하루 전인 11일 서울 중구의 한 대형마트 직원이 매월 2·4주 수요일 자율휴무 라고 적힌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쇼핑 고수들은 특A급 리퍼 상품에 눈독 들인다. 신혼 살림살이를 장만하고 있는 이슬기(27)씨는 가전 가구 매장을 다닐 때마다 '리퍼', '진열'이라 쓰인 상품은 없는지 먼저 확인한다. 정가보다 30% 이상 싸게 살 수 있어서다.

리퍼(Refurbished) 상품은 소비자의 변심 등으로 반품됐거나 재고로 남은 상품 등을 수리해 재포장한 것으로 이미 포장을 뜯거나 사용한 흔적도 있지만 기능만큼은 새 제품 못지않다. 주로 생활 가전과 IT 제품이 많다. 이씨는 "리퍼 상품이나 진열 제품은 가격도 저렴하지만 AS도 받을 수 있어 더 찾게 된다"고 말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중고 시장은 불황이 빚어낸 그늘로 취급받았지만 IMF 시절을 지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는 동안 합리적인 소비 형태로 탈바꿈했다"며 "요즘 세대가 생각하는 중고는 이전 세대와 많이 달라져 서로 바꿔 쓰는 개념에 더 가까워졌다"고 풀이했다.

/전효순기자 hsjeon@metroseoul.co.kr

맞벌이·비맞벌이 가계수지

3분기 기준 (단위: 원) 맞벌이 / 비맞벌이

	맞벌이	비맞벌이
소득	5,138,463	3,558,764
소비지출	2,869,367	2,213,718
처분가능소득	4,160,867	2,879,463

자료: 통계청 / 연합뉴스

남는게 없다는 맞벌이…그래도 외벌이보다 낫다

月수입 513만원에 지출 387만원 혼자 버는 것보다 1.9배 흑자

맞벌이를 해봤자 쓰는 돈이 많아 남는 게 없다는 통념이 있다. 하지만 맞벌이 가구의 흑자 규모가 맞벌이를 하지 않는 가구보다 컸다. 그 차이가 2배에 가까웠다.

11일 통계청 조사를 보면 지난 3분기에 맞벌이 가구는 평균 월 513만8000원을 벌고 387만9000원을 써 125만9000원을 남겼다. 맞벌이가 아닌 가구는 한 달 소득이 평균 356만원, 흑자 규모는 66만3000원에 불과했다. 맞벌이 가구의 흑자 규모가 맞벌이를 하지 않는 가구의 1.9배에 달했다.

맞벌이 가구의 평균 소비 성향은 69.7%로 비맞벌이의 77.0%보다 7.3%포인트나 하았다. 절대소득이 크기 때문에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하는 데 쓴 돈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뜻이다.

맞벌이 가구의 가계 형편이 전반적으로 좋을에도 '남는 게 없는 장사'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교육비와 외식비 등 체감도가 큰 항목에서 지출되는 돈이 많기 때문이다.

맞벌이 가구의 전체 소비지출 규모는 비맞벌이의 1.31배다. 그러나 교육에 쓰는 돈만 보면 맞벌이가 비맞벌이의 1.65배에 달한다. 사교육비에서 차이가 두드러진다. 입시 보습, 개인과외 등을 포함한 지출 항목인 '학생학원교육'에 맞벌이가 지출한 금액은 22만2000원으로 비맞벌이(14만1000원)의 1.58배였다.

맞벌이가 비맞벌이에 비해 외식하는 경우도 잦았다. 일반 식당, 배달 음식 등에 쓴 돈을 뜻하는 '식사비'로 맞벌이는 한 달에 38만2000원을 써 비맞벌이(27만원)의 1.41배에 달했다.

/김지성기자 lazyhand@

정여사처럼 2억 뜯은 블랙컨슈머

"바꿔줘" 제품결함 생트집 2년간 200여차례 협박

대기업 콜센터 감정노동자나 서비스 직원 등을 공갈·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50대 블랙컨슈머가 구속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대기업과 통신사 콜센터 감정노동자들을 협박해 수억원가량의 금품을 뜯어낸 이모(56)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블랙컨슈머란 기업을 상대로 보상금 등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고의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악성 소비자를 말한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가족과 지인의 명의 등을 동원해 최근 2년간 200여 차례에 걸쳐 스마트폰을 개통, 정지, 재개통, 해지 등을 일삼았다. 이 과정에서 대리점 직원이나 상담원들의 태도 등을 문제 삼으며 협박해 2억4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해당 통신사 대리점에 돈가를 들고 찾아가 불러 위협을 가하는 방식으로 통신료를 대납하게 하기도 했다.

이씨의 협박과 사기 행각의 방식은 다양했다.

새로 구매한 냉장고에 전원을 끄고 상황버섯을 넣어 부패시킨 뒤 제품이 이상하다며 서비스센터에 신고했다. 이후 수리 직원이 도착할 무렵 냉장고를 개가동하고는 제품 하자를 언론 등에 알리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지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 이씨를 체포, 사기 및 공갈,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배동호기자 slaven@metroseoul.co.kr

박근혜 '아이패드 커닝' 논란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이 10일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2차 TV 토론을 보도한 사진을 놓고 다시 신경전을 벌였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11일 제주 서귀포시에서 열린 유세에서 제주시 당원들에게 감귤 바구니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측 허영일 부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TV 토론에서 커닝을 했다는 얘기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 떠돌고 있다. 유포되고 있는 사진은 박 후보가 무릎 위에 '아이패드 핀도 백'을 올려놓고 있는 게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사진은 토론 중이 아닌 토론이 열리기 전 준비 과정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선규 새누리당 선대위 대변인은 "토론을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걸 갖고 커닝했다고 하면 대체 어쩌란 거냐"고 불만을 표했다.

하지만 허 부대변인은 "박 후보가 TV 토론에 아이패드를 지참하고 간 것을 박 캠프 대변인이 시인했다"며 "토론회 안내서를 보면 후보자는 토론회장에 입장할 때 낱장 자료 외에 노트북, 도표, 차트, 기타 보조 자료를 지참할 수 없다'라고 돼 있다. 박 후보가 커닝은 안 했지만 '반칙'을 한 것은 맞다"고 재차 공세를 취했다.

/배동호기자 slaven@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72>

글·그림 박상필

12·12사태 발발

1979년 12월 12일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주동이 된 신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켰다.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은 최규하 대통령의 승인 없이 육군참모총장 정승화를 강제로 연행하고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국가권력을 탈취했다. 이어 광주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한 그들은 거침없이 제5공화국 수립의 단계를 밟아나갔다.

<MB정부·YS정부 총리>

정운찬·이수성 "文 지지"

민주 "중도층 표심 우리편으로"… 박주선도 朴지지 철회하고 文으로

대통령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전·현 정권 국무총리의 지지를 이끌어내며 중도층 표심 잡기에 적극 뛰어들었다.

문 후보 측 우상호 공보단장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정운찬, 이수성 전 국무총리가 문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11일 경기도 고양시 라페스타에서 열린 유세에서 시민들과 악수하고 있다. 문 후보는 이날 사병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축소하고 월급도 2배 이상 인상한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정 전 총리는 이명박 정부의 2대 총리를 지냈고 이 전 총리는 새누리당 출신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 총리를 역임했다.

우 단장은 "이분들은 각각 충청·영남을 대표하는 개혁적 인사 내지 개혁적 보수인사"라며 "중도진영의 균형추가 문 후보로 기울어졌다"고 말했다.

우 단장은 고건 전 총리도 문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가 "고 전 총리가 직접 부인하면서 체면을 구겼다. 고 전 총리는 "문 후보의 전화를 받고 '수고한다. 열심히 하라'고 격려한 것 뿐"이라고 전했다.

최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지지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던 박주선 무소속 의원은 돌연 문 후보 지지를 밝혔다.

한편 문 후보는 충기도권·안철수 전 무소속 후보는 서울 대학가를 돌며 수도권 중도층 잡기에 박차를 가했다.

/김유리기자 grace17@metroseoul.co.kr

성범죄 교사 징계시효 5년으로 연장

성범죄 교사에 대한 징계가 강화된다. 정부는 11일 성범죄를 저지른 교육 공무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징계 대상이 되는 성폭력 범죄를 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밖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지니면 벌금 2000만원이 부과되며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조항은 폐지된다.

/장윤희기자 unique@

재외국민 투표율 71.2%… 13~14일 부재자 투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재외국민의 대통령선거 투표율이 71.2%를 기록하며 막을 내렸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5~10일 세계 110개국 164개 공관에서 치러진 재외 대선 투표에 지난달 20일까지 신고·등록을 마친 재외선거인 22만2389명(등록률 10.01%) 가운데 15만8235명이 참가했다.

전체 재외 유권자(223만3695명 추정) 대비 투표율은 7.1%였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13~14일 이틀 동안 부재자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108만5607명이며 투표소는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김유리기자

잇단 한파 전력 아슬아슬 세번째 '관심' 경보 발령

11일 한파에 전력 사용량이 급증해 전력 경보가 잇따라 발령됐다. 전력 경보가 내려진 것은 올 들어 세 번째다.

전력거래소는 이날 오전 8시23분 순간 예비전력이 450만㎾ 미만으로 하락해 전력 경보 '준비(400만㎾ 이상 500만㎾ 미만)' 단계에 돌입했다. 하지만 전력 수요가 줄지 않아 곧 순간 예비전력이 350만㎾ 미만으로 떨어졌고 오전 8시36분에 전력 경보 '관심(300만㎾ 이상 400만㎾ 미만)'을 발령했다.

전력 당국은 오후 3시 현재 '주의(200만㎾ 이상 300만㎾ 미만)' 경보까지 내려갈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수요 관리(200만㎾), 구역 전기 사업자 공급 확대(45만㎾), 전압 조정(100만㎾) 등 비상대책을 총력 대비 전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박상훈기자 zen@

어금니 깨뜨린 마사지

180만원 주고 '얼굴 축소' 관리 받았는데 날벼락… 허위광고 13곳 제재

A씨는 180만원을 주고 얼굴 축소 마사지를 20회나 받았지만 얼굴이 붓고 두통에 시달렸다. 이후 병원에서 어금니 파열 진단을 받았다.

B씨는 125만원을 주고 얼굴 비대칭 관리 서비스를 이용했다. 그러나 비대칭은 교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턱관절 장애까지 얻었다.

'10회 관리에 얼굴 15% 축소', '마사지로 일자 다리 완성' 등의 과장 광고를 일삼은 피부관리실이 불되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비스를 거짓 과장 광고한 13개 피부·체형 관리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4개 업체에 대해 총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11일 결정했다.

소비자안전정보과 김정기 과장은 "이들 업체는 입증되지 않은 광고 표현을 경쟁적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2009년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피부·체형 관리 서비스 관련 상담은 총 1만 511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상담센터 관계자는 "전체 상담 내용 중 약 60%는 부작용 호소 및 계약 해지 불만"이라며 "업체 광고나 인터넷 글에만 의존하지 말고 소비자상담센터에 피해 사례를 문의하라"고 당부했다.

소비자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unique@metroseoul.co.kr

모래 뿌린 빙판길 더 위험

오히려 2배 이상 미끄러워

모래를 뿌린 노면의 정지거리가 마른 노면에 비해 2배 이상 미끄럽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눈 온 뒤 모래를 뿌린 노면에서의 운전이 가장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끄럼 방지를 위해 뿌려둔 모래 때문에 정지거리가 2.2배 길어지기 때문이다. 또 염화칼슘을 뿌려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는 평소보다 정지거리가 1.6배 길어졌다.

실제 실험에서 건조한 아스팔트 노면의 급제동 시에는 12.6m 미끄러지지만, 눈길은 37.5m, 제설제 살포 후 젖은 노면은 19.9m, 모래 노면은 28.1m로 측정됐다.

하지만 사고 위험은 부분적으로 젖은 노면과 모래가 남아있는 노면에서 급증했다. 눈이 쌓여있는 경우 운전자들의 주의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위험성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감소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염화칼슘이 뿌려져 군데군데 녹은 노면과 모래가 뿌려져 있는 노면의 경우 운전자가 높은 위험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눈길·빙판길 교통사고는 2009년 2977건에서 2010년 6509건으로 급증했으며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81명에서 165명으로, 5000명에서 1만 명으로 두 배 늘었다. 사고의 대부분은 제설제와 모래 등을 과신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겨울철 한파나 강설 후에는 저속운행 유지와 안전거리 확보가 필수"라며 "주야간 모두 전조등을 켜고, 브레이크를 2~3회 나눠 밟아주는 것이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채윤경기자 eleven@

지난 6일 서울 제풍춘허복합 뒤편 도로에서 소방관들이 미끄러운 눈길위에 모래를 뿌리고 있다 /연합뉴스

연아의 화려한 입국 NRW 트로피 대회에서 우승한 피겨여왕 김연아가 11일 영종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기자회견을 마친 뒤 손을 들어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728>

글·그림 박상철

12·12사태 발발

1979년 12월 12일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주동이 된 신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켰다.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은 최규하 대통령의 승인 없이 육군참모총장 정승화를 강제로 연행하고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국가권력을 탈취했다. 이어 광주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한 그들은 거침없이 제5공화국 수립의 단계를 밟아나갔다.

지역 미술인 작품 日 백화점 간다

부산시민회관 운영 '한슬아트샵' 한류상품 판매점 전시

부산시민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슬아트샵'이 일본에 진출하게 됐다.

부산시민회관은 부산 기업인 S&J와 협약을 맺고 일본 후쿠오카에 있는 텐진 인큐브 백화점 내 한류상품 전문 판매점인 '브릿지타운'에 서부산의 23명 미술인들이 제작한 미술품들을 전시·판매하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부산시의회 이해동 부의장이 중개를 맡았다.

이 부의장은 "지금까지 국내 아트상품이 해외의 백화점 전문매장에서 전시·판매한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 볼 때 이번 부산시민회관의 일본 진출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며 "특히 지역의 유통회사가 공기업인 부산시민회관의 한슬아트샵 작품을 일본 현지에서 판매하려는 것도 새로운 문화교류의 기업 사례를 만드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시민회관 강진철 관장은 "이번 일이 교두보가 되어 한슬아트샵 참여 작가들에게는 활성화 마인드 구축의 계기가 되고 부산시민회관 및 한슬아트샵 이미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한슬아트샵과 한류관의 이미지에 부

함께 한류상품의 개발로 부산 문화예술작품을 해외에 알리는 공공문화시설로서의 책무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1월에 협약 체결을 마친 부산시민회관은 12월 초 일본 현지 방문 및 전시·판매 설명을 위해 작품 배송 등 제반 사항을 마친 상태이며, S&J(주)는 아트상품의 통관을 마치고 오는 15일 개점할 예정이다.

또 내년 3월 중으로 상설 여부를 판단해 '한슬 초대전(가칭)'의 개최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수미기자 kan@metrobusan.co.kr

신재생에너지 가로등 화명생태공원에 설치

부산 화명생태공원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가로등 조명이 설치된다.

부산시낙동강사업본부는 북구 화명생태공원 북측 자전거도로 진입로 3㎞에 태양력과 풍력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전용 하이브리드 가로등 조명을 설치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가로등 조명을 밝히고 남은 여분의 전력은 자전거도로 바닥 조명에 이용하게 된다.

낙동강사업본부는 지난 7월 1차 구간(2km)에 하이브리드 가로등 설치를 완료한 상태다.

이 하이브리드 가로등은 태양광과 풍력, LED 조명의 고효율성이 혼합된 가로등으로 전력 공급 없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낙동강사업본부 관계자는 "화명생태공원 진입로 조명 설치로 야간에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교육상 수상자 5명 선정

부산시교육청은 제25회 부산 교육상 수상자로 초등교육 부문 조선백 전 부산시 교육연수원 원장을 비롯해 5명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조 전 원장 외 중등교육 부문에 김찬제 전 부산시 교육연구정보원 원장, 사회교육 부문에 이원우 전 명덕초등학교 교장과 조금세 전 동여고 교장, 교육행정 부문에 문성국 전 해운대 교육지원청 관리국장 등이 수상했다.

올해는 유아·특수교육 부문의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부산 교육상은 존경받는 스승상을 성립하고 교육자를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1988년 제정돼 올해로 25회째를 맞고 있다.

이들에 대한 시상식은 21일 오후 4시 부산시교육청 4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태석 신부 기리는 '수단 편 보내기' 봉사와 희생을 온몸으로 실천한 '수단의 슈바이처' 고(故) 이태석 신부를 기려 아프리카 수단에 화운물을 보내는 캠페인이 2년째 계속되고 있다. 11일 경남 통영시 경향사회복지관에서 전국에서 모인 물품을 분류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연합뉴스

사서·특수 실무원 파업 예고

전국 학교 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는 지역 초·중·고교 사서와 특수 실무원이 14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학교 도서관에서 책 관리와 독서 지도를 맡는 사서 실무원과 장애 아동을 돌보고 지원하는 특수 실무원이 파업에 나섬에 따라 관련 행정 업무에 차질이 우려된다.

이번 파업에는 총 70여 명의 사서와 특수 실무원이 참여한다.

이들은 무기계약직 전환 보장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노조는 "사서·특수 실무원이 무기계약 전환 직종에 포함돼 있지만, 부산시교육청과 일선 학교가 꼼수를 부려 사실상 해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비노조 측은 "전국적으로 사서 실무원이 무기계약 전환 직종에 포함되지 않는 사례가 거의 없을 정도로 상시 지속 업무인데도 시 교육청은 애초 '사서 실무원은 부산에 없었고, 도서관 전담 인력 민 운영됐기 때문에 무기계약 대상이 아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특수 실무원의 경우 '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원래 직종의 급여 등 처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무기계약으로 되면 안 된다'는 지침을 시 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내려보냈다"고 덧붙였다.

기장군에 새 산업단지

14만5860㎡ 부지에 조성 … 2015년 완공

부산 기장군에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된다.

부산시는 이달 초 광진디엔씨 등 시업 시행자가 기장군 정관면 모전리 일대 14만5860㎡ 부지에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신청해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총 사업비 457억2000만원을 들여 실수요자 대행 개발하는 방식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해 2015년 완공할 예정이다.

이 산단에는 음료, 섬유, 고무, 플라스틱, 금속, 기계, 자동차, 가구 제조업 등이 들어선다.

이 지역은 정관신도시 산단로와 접해 있어 양산, 울산 등지로의 이동에 편리하며 시원주택 확보 등도 쉽다. 부산시는 27일 오후 정관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연 뒤 다음달 8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현재 기장군에는 정관산단, 장안산단, 기룡산단 등 6곳의 산업단지가 준공된 상태며 모전산단과 오리산단, 명례산단 등 5곳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거나 계획 중이다. /연합뉴스

'애벌레 고춧가루' 제조업체 7곳 적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김장철 성수 식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애벌레가 들어 있는 고춧가루를 보관한 업체 등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김장철을 앞두고 지난 9월부터 고춧가루 제조·판매 업체 등 79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애벌레가 발생한 불량 고춧가루를 제조, 판매하거나 중국산 냉동 고추를 비위생적인 장소에서 말린 업체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개 업체를 적발, 이 가운데 4개 업체를 입건하고 나머지 3개 업체는 담당 구청에 행정처분하도록 통보했다.

부산 사상구에 있는 A업체는 고춧가루에 다진 양념을 혼합한 불량 고춧가루를 판매하다 지난해 단속에서 적발된 데 이어 올해 단속에서도 애벌레가 발생하고 곰팡이(식염)이 검출되는 등 불량 중국산 고춧가루 700㎏을 제조·판매해오다 적발됐다.

B업체는 중국산 청양 고춧가루 4t가량을 유통기한, 성분명 등을 표시하지 않은 채 고춧가루 소분업체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양산시 소재 C업체는 1년여간 고춧가루 12t(7200만원 상당)을 부산, 울산지역 재래시장 등에 판매하면서 제품명, 제조원, 소재지 등을 허위 표시해오다 적발됐다.

사하구 소재 D업체는 대규모 건조시설을 갖추고 중국산 냉동 고추를 대량 수입, 건조 작업을 하면서 불결하고 비위생적인 바닥에 마른고추 2t가량을 쌓아놓고 선별 작업을 하거나 건조시설 내부를 제대로 청소하지 않아 시커먼 때가 낀 상태에서 냉동 고추를 건조하다 단속됐다.

특사경은 이달 말까지 고춧가루, 젓갈류 등 김장 관련 식품 제조·가공업체의 위생관리 실태,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 ...
TEL (02)721-9800 FAX (02)730-1554
발행인·편집인 [illegible]
사회부장 [illegible]
부산지사장 겸 대표 [illegible]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658-2100
독자센터 (02)721-9862
[illegible]

울산에 산타클로스 버스승강장 울산시 동구 일산동 일산해수욕장 앞에 산타클로스 장식을 단 시내버스 승강장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울산시 동구 제공

원정쇼핑객 2배 늘었다

부산~거제 잇는 거가대로 개통 2주년 뭐가 달라졌나

부산 롯데백화점 분석…동남권 유통지도 바꿔

13일부로 부산과 거제를 연결하는 거가대로가 개통 2주년을 맞으면서 동남권 유통지도를 바꿔놓고 있다

부산지역 롯데백화점 4개 점이 11일 고객 관리 프로그램(CRM)을 통해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백화점을 이용한 거제·통영지역 고객은 4만2500여 명으로 거가대교 개통 전인 2010년 같은 기간 2만500여 명 비해 2배(109%) 이상 늘었다

이 같은 증가율은 거제·통영지역을 제외한 경상남도 전체 구매 고객 증가율 24%와 비교했을 때 4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즉 거가대교 개통으로 거제와 통영지역 고객의 부산 유통기 유입 속도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제·통영지역 고객이 부산지역 백화점에서 쇼핑으로 사용한 금액도 거가대교 개통 전인 2010년에 비해 150억원(129%) 가까이 늘었다

경상남도 소비자 가운데 거제지역 고객의 1인 평균 구매금액(객단가)은 73만원대로 경상남도 평균 62만원보다 11만원 높게 형성돼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부산지역 4곳의 롯데백화점 가운데 거제·통영지역 고객이 가장 많이 찾는 점포는 부산본점(45%)으로 나타났다

광복점은 거가대교 개통 전과 비교해 구매 고객 수 증가율이 132%로 기록해 4개 점포 가운데 가장 높아 거가대교 개통의 최대 수혜 점포로 떠올랐다

거제·통영지역 고객이 선호하는 상품군은 해외 명품이 2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캐주얼 의류, 스포츠, 화장품, 피혁 잡화 등의 순이다

20~30대 젊은 고객 구성비도 66%로 다른 지역 평균 55%에 비해 높았다

거제·통영지역 쇼핑객의 직업은 회사원이 26%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자 7%, 교육기관 종사자 4%, 병원 관계자 3%, 은행 2%, 공무원 1%의 순으로 조사됐다

롯데백화점 영업2본부 이경길 홍보팀장은 "부산이 쇼핑 도시로 인식되면서 거가대교가 거제·통영지역 고객을 흡수하는 가교역할이 되고 있다"며 "주변 지역 고객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모션과 이벤트를 마련해 고객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남 학원 교습시간 감소

내년 3월부터 실시

현재 자정까지인 경남지역 학원들의 교습시간이 내년 3월부터 최대 3시간 줄어든다

경남교육청은 밤 12시까지인 현재의 학원 교습시간을 줄이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10일 경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새 조례가 시행되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은 오후 9시, 중학생 대상 학원은 오후 11시까지만 각각 교습을 할 수 있다

고등학생 대상 학원의 교습시간은 자정까지로 변동이 없다

도교육청은 당초 모든 학원의 교습시간을 자정에서 밤 10시로 2시간 줄이는 내용의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달 말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이유로 수정의결했다

해당 조례는 공포일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도교육청은 이번주에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어서 내년 3월 중순께부터 학원들이 교습시간을 줄여야 한다

초등학생 무상급식 확대 부산시의회 본회의 통과

내년부터 부산지역 초등학교 5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예산안이 진통 끝에 부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산시의회는 11일 제224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2013년도 부산시 예산안과 부산교육청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를 통과한 교육청 예산안에는 초등 급식 예산 939억원이 포함됐다. 현재 초등 3학년까지인 무상급식 대상자를 5학년까지 확대할 수 있는 돈이다

본회의 표결 결과 5학년 무상급식안에 찬성한 시의원이 35명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반대표와 기권표가 각각 10표와 4표로 기록됐다

한편 시의회는 2013년도 부산시 예산안 8조3606억원과 교육청 예산안 3조2217억원을 각각 의결했다. 시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4.7%, 교육청 예산은 4.6% 각각 늘어난 규모다

노인 장기요양기관 인증제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부산시는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 수요에 대비, 노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인증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한 노인 장기요양기관 인증제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부산시 자원의 최초 인증이다

이번에 인증을 획득한 시설은 부산시노인건강센터를 비롯해 노인요양시설 6곳, 소규모 요양시설 3곳 등 모두 9곳이다. 인증 영역은 경영, 시설환경, 서비스, 인권, 지역사회 자원 개발 등 모두 5개 영역(59개 항목)이고 인증 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2년간이다

인증을 획득한 시설에 대해서는 인증서와 현판, 소정의 운영지원금이 제공된다

부산시 고령화대책과 한 관계자는 "앞으로 많은 시설이 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계 전문가 꿈꾸는 방송대 '정예군단'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지혜 나눔-인생 배움' 캠페인 ⑤ 정보통계학과 '초심스터디'

한국방송통신대 정보통계학과 초심스터디 학생들이 지난 여름 MT에서 래프팅을 하기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동기는 밀어주고 선배는 끌어주고… 공부도 '팀플'
회원끼리 가족같은 관계 '열공 초심' 절대로 안잊어

한국방송통신대 정보통계학과 학습 공동체 '초심스터디'는 '언제나 초심처럼 공부하자'는 의미로 지었다. 모두가 직장인인 특성을 반영해 매주 토요일 오후 2~6시 사이에 모여 함께 공부하고 친목을 다진다.

1~4학년까지 학년 대표가 스터디 그룹장이 돼 오프라인 모임 주최와 온라인 카페 관리 등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그리고 학년에 상관없이 어려운 과목이나 중요 과목을 중심으로 함께 공부하기도 한다.

소매점을 하는 부모님을 돕기 위해 통계가 필요했다는 1학년 대표 한재희(23)씨는 "스터디 내 1학년 6명이 함께 같은 6개 과목을 신청했다"며 "한 번 스터디할 때 2시간씩 두 과목을 공부한다. 한 달이면 모든 과목을 소화할 수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공부할 분량을 조금씩 나눠 맡아서 발제하기 때문에 서로 설명해주고, 그래도 이해가 안되면 선배들에게 바로 물어볼 수 있어 어려움이 없다"고 덧붙였다.

올해 20주년을 맞이한 정보통계학과는 지난달 학과에서 가장 큰 행사인 '통계인의 밤' 행사를 열었다. 식전 행사로 방송대가 방송대생 전체를 대상으로 주최한 '대학생 통계경진대회'에서 '초심스터디' 회장 정지은(32)씨가 총장상을 받는 쾌거도 이뤘다.

정씨는 '정보통계학과 신·편입생 실태 조사'를 통계적 방법으로 분석한 논문으로 학과 교수들의 날카로운 심사를 통과했다. 정씨는 "방송대에서 공부한 통계를 실무에 적용해 전문적으로 업그레이드됐다는 평을 듣는다. 웬만한 대학의 통계학과보다 우리 학과가 매우 뛰어나다고 생각한다"며 "재학생들도 각자의 목표를 이룰 때까지 서로 도우며 공부한다"고 자부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밖에도 스터디 그룹 내에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소모임을 결성, 7명이 사회조사분석사 2급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는 쾌거를 이뤘다.

정보통계학과에는 증권·의료·일반 회사 등 통계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입학한다. 스터디에 참여하는 이들은 실질적인 지식 획득 외에도 친목이나 서로를 다독이며 지칠 나태해질 수도 있는 분위기를 방지하고자 노력한다.

스터디 모임의 막내 격인 한재희씨는 "가족 같은 스터디 그룹의 특성으로 끈기를 갖게 됐다. 공부할 용기가 생겨 끝까지 공부할 것"이라며 "우리는 소수 정예 모임"이라고 말하곤 밝게 웃었다. /김용근기자

여론조사기관·정보통신 분야 등 진출

■ 방송대 정보통계학과는

정보화 시대는 각 개인·단체·기업·국가의 성패가 다량의 정보를 유효하고 적절하게 만들고 사용하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보통계학과는 사회조사와 실험 연구, 정책 결정 등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학문으로 이런 요구에 발맞춰 사회가 필요로 하는 통계인력을 양성한다.

컴퓨터를 활용해 상품의 품질·여론·금융·생명과학·국가 통계 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를 분석·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졸업 후에는 데이터 및 정보 분석 능력을 요구하는 여론조사 기관, 품질관리 분야, 금융기관이나 기업체의 연구조사 분야, 정보통신 분야를 비롯해 병원, 암센터와 같은 생명과학 연구 분야 등 다양한 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다.

문의: 02) 3668-4680
http://stat.knou.ac.kr

비락

언제나 간편하게

내 손이 밥상!

건조밥과 건더기스프로 3분이면 맛있고 따뜻한 컵밥이 내 손에!
이제 회사에서, 학교에서, 집에서
든든하고 영양 많은 비락 컵밥하세요.

비락 즉석 컵밥

더 든든한, 비락 즉석 컵밥

50년 건강기업 비락이 만든 비락 즉석 컵밥 좋은 재료로 정성스럽게 만들어 믿을 수 있습니다. 이제 대충 때우지 말고 한번을 먹어도 컵밥하세요.

조리방법 ① ② ③ ④

치킨카레맛 해물맛

KOSPI	12/5	12/6	12/7	12/10	12/11
	1947.04	1949.62	1957.45	1957.42	1964.62 (+7.20)

KOSDAQ	12/5	12/6	12/7	12/10	12/11
	498.50	486.03	489.22	499.59	491.50 (-6.06)

지수	
Nikkei (일본)	9525.32 (-8.43)
Hang Seng (홍콩)	22323.94 (+47.22)
Shanghai (중국)	2074.70 (-9.07)
Dow Jones (미국)	13169.88 (+14.75)

EXCHANGE RATE	
달러	1076.00
엔(100)	1306.46
유로	1393.10
위안	172.14

쪼그라든 '버블세븐' 시총 비중 고작 33%

집값 급등을 이끌었던 '버블세븐'의 시가총액 비중이 급락했다.

11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서울·경기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303만4279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시가총액에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포함한 버블세븐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6년 5월 43%에서 현재 33%로 줄었다. /박상훈기자 gbt

가계대출 잔액 650조 첫 돌파

10월 들어 2조6000억원 상승 반전… 증가율 14개월째 감소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이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사상 처음으로 650조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증가율은 낮아졌고, 증가 속도도 둔화됐다.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2조6000억원 증가한 651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9월 1조3000억원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된 것으로 사상 최대치다.

또 한은 통계에 제2금융권을 포함한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이 650조원을 넘어선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이 2조원 늘어난 461조3000억원이었고, 전체 대출에서 주택대출을 뺀 기타 대출도 147조6000억원으로 1조6000억원 불어났다.

주택담보대출은 부동산 거래세 감면 조치에 따라 6000억원 증가한 312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거래세 감면 조치로 주택 거래가 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데다 추석 연휴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2% 증가에 그쳐, 증가율로만 따지면 역대 최저치였다. 특히 지난해 8월 8.8%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14개월째 감소세를 보였다. 한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계대출이 현 수준에서 크게 줄어들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별 가계대출 잔액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지난달 대비 각각 7000억원, 2조원 증가한 413조8000억원, 23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김재현기자 icyhand@metroseoul.co.kr

'소니 상징' 워크맨 역사속으로

내년 1월부터 생산중단

소니를 대표하는 상품이었던 워크맨이 단종된다.

11일(한국시간) 미 IT 전문 매체 씨넷 등에 따르면 소니는 내년 1월부터 워크맨 생산을 중단할 계획이다. 1979년 등장한 워크맨은 당시 현재의 아이폰처럼 혁신의 아이콘으로 통했다.

하지만 CD, MP3플레이어, 스마트폰에 밀려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다만 소니는 MP3 플레이어와 같은 자사 휴대용 디지털 오디오 기기에 계속해서 워크맨이라는 이름을 사용한다.

하루 전 모토로라가 한국에서 철수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소니도 간판 상품을 단종시키기로 하는 등 글로벌 IT 기업의 굴욕은 이어지고 있다. /박상훈기자

KT '데이터 로밍 정액권' 출시 KT는 해외에서 원하는 기간 한봉 정액권 요금제에 가입해 무선데이터 서비스를 할들이게 즐길 수 있는 '데이터 로밍 정액권'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뉴시스

고금리 맘고생, 캠코 '바꿔드림론'으로 탈출

저신용 서민 저금리 전환대출 '바꿔드림론' 이용자 14만명 육박

신용등급과 소득 수준이 낮은 서민들이 은행에서 대출의 문턱을 넘지 못해 대부업체나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

이에 따라 서민들은 높은 이자의 부담으로 채무상환의 어려움에 빠지곤 한다. 이처럼 고금리 채무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금융 지원을 위한 전환대출인 '바꿔드림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대에서 8~12%로

'바꿔드림론'은 저소득·저신용 계층이 대부업 및 저축은행 등에서 빌린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해 시중은행의 8~12%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서민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단, 가산보증료율 0.5~1.5%는 별도다.

지난달 말까지 이용자 수가 13만 5000명에 이르고 대출금액은 1조 4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대표적인 서민금융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 지원 확대

지원 대상은 신용 6~10등급으로 연소득 4000만원 이하(사업자등록 개인사업자는 45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연소득 2600만원 이하인 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수채무자로서 연 20% 이상 고금리 채무를 정상 상환 중이어야 한다.

또 현재 연체 중이거나 과거 연체 기록(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 또는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 4회 이상)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전에 약정한 고금리 채무를 3000만원까지 '바꿔드림론'으로 전환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고금리 채무 총액이 1000만원 이하이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 이하인 때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전에 약정한 채무도 전환 가능하다.

등록 개인사업자라면 지난달 12일에 새로 출시된 '영세 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을 이용할 수 있다. 지원 요건은 '바꿔드림론' 기준과 동일하지만 연소득 기준이 4500만원 이하까지 확대됐다.

캠코 신용회복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해 보증료율을 포함 연 8~12%로 최대 3000만원까지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상환)기간은 최장 5년(사업자등록 개인사업자는 최장 6년)이며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상환하면 된다.

◆전화·온라인으로 상담·신청

'바꿔드림론' 이용을 원할 경우 1397 서민금융다모아 콜센터(국번 없이 1397번)로 문의해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캠코 또는 16개 은행 대출상담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서민금융종합포털 '서민금융나들목(www.hopenet.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배동호기자

브레이크 없는 환율하락

美 추가경기부양책 전망속 15개월래 최저치 연일 경신

원-달러 환율이 사흘째 하락했다.

하루 전 15개월 만의 최저치 기록을 하루 만에 갈아치워 당분간 하락 흐름을 쉽게 거스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벌써 "지지선을 잃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1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는 전 거래일보다 2.30원 내린 1076.7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환율은 3.00원 내린 1076.00원에 개장한 직후 1077.80원까지 상승했다. 가 장중 지속적인 하락 압력을 받아 1076원대로 주저앉았다. 지난해 9월 8일(1075.10원) 이후 최저치다.

11~12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추가 경기부양책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점이 환율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이달 말로 끝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연장하거나 4차 양적 완화를 실시하는 등 경기부양책을 이어갈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연방준비제도가 가진 단기 채권을 팔고 그만큼의 장기 채권을 사들이는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장기 금리를 낮게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다.

다만 우리 정부가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에 대한 규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점 등 당국 개입에 대한 경계감이 환율 하락 폭을 제한했다.

외환시장 관계자는 "당국의 스무딩오퍼레이션(미세조정)과 규제 강화 경계감이 달러화 하단을 지지로 막았다. 수출업체 네고 물량(달러 매도)도 뜸해 환율이 오후 내내 박스권 장세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상준기자 zen@metroseoul.co.kr

농협 인터넷뱅킹 '웹어워드 코리아' 혁신상 수상 NH농협은행 인터넷뱅킹이 제9회 웹어워드 코리아 서비스 이노베이션 대상을 수상하는 등 3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이 상은 방송통신위원회 후원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주최로 한 해 동안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성과를 올린 웹사이트를 선정한다. 사진은 NH농협은행 e비즈니스부 소성오 부장(오른쪽)이 수상하는 모습. /김재범기자

"금융산업 커질수록 소득불평등 심화"

금융의 덩치가 커질수록 사회 양극화는 더 심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1일 서울대학교 박종희 교수(정치외교학)는 최근 '금융산업의 발전은 불평등을 증가시키는가?'라는 논문에서 지난 1세기 동안의 미국 경제 자료로 금융산업의 발전과 소득 불평등의 상관관계를 추적했다.

그 결과 지난 100년간 금융산업이 성장할수록 고소득층에게 사회의 부가 편중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불평등이 임계점에 다다르면 금융위기가 찾아오는 패턴이 반복됐다.

/김지성기자

겨울방학 '영어숲' 애들 야호!

윤선생영어교실 일대일 특별프로그램 운영
홈스쿨 5색 캠프에선 부족한 파트 집중보충

윤선생영어교실(www.yoons.com)은 겨울방학을 앞두고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 홈스쿨 형태의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과 영어숲 센터에서 진행되는 일대일 맞춤 특별반을 운영한다.

홈스쿨에서는 '내 아이만을 위한 영어맞춤학습'이란 콘셉트로, 방학 기간 동안 개인별로 보충이 필요한 도전 과제를 선택한 뒤 목표를 세워 학습하고 수료하는 집중학습 형태로 진행된다. 특히 저학년부터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풋 도전 과제 3개와 아웃풋 도전 과제 2개로 구성됐다.

먼저 '마이 리딩 캠프'는 재미있는 읽기 교재를 반복해서 읽은 뒤 줄거리 작성 등 독후 활동을 하게 된다. 미션을 완수하면 방학이 끝난 시점에 학생들은 자신만의 리딩 포트폴리오를 가질 수 있다.

'마이 스피킹 캠프'는 커뮤니케이션 교재 학습과 원어민 전화 영어로 구성되어 의사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을 뿐 아니라 NEAT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마이 라이팅 캠프'는 아이디어 맵을 활용한 주제별 글쓰기 연습과 온라인 학습시스템 'NEAT 베플리'에서의 맞춤 쓰기 학습을 통해 논리적인 글쓰기 스킬과 글쓰기에 대한 자신감을 키운다. 특히 'NEAT 베플리'는 회원이 작성한 글을 실제 NEAT와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고 상세한 첨삭과 피드백을 제공해준다.

'마이 그래머 캠프'는 기본 교재와 문법 시리즈 교재를 학습하면서 초등 고학년들이 알아야 할 문법을 쉽고 간편하게 학습하는 도전 과제다.

'마이 레벨업 캠프'는 새 학년이 되기 전 개인별 영어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 주는 속진 학습 프로그램으로,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학습량을 차별화하여 배분하는 등 보다 집중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 전국 영어숲에서는 '결과가 보이는 영어숲'이라는 슬로건으로, 1~2월에 걸쳐 특별반을 운영한다.

W클래스(쓰기)와 R클래스(읽기)는 NEAT 대비 쓰기와 읽기를 준비할 수 있다. W클래스의 경우 체계적 쓰기 학습 도구인 아이디어 맵을 활용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스킬을 배운다. R클래스는 다양한 장르의 교재 학습을 통해 읽기 능력과 어휘력을 확장할 수 있다.

G클래스(문법)는 영어의 핵심인 문법을 초등 기초부터 중등 고급까지 다양한 문법 교재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배우게 된다. P클래스(파닉스)는 체계적으로 파닉스 규칙을 배워 다독과 속독 실력을 탄탄하게 다질 수 있다.

회원들은 자신의 학습 장단점 분석과 일대일 상담을 거친 후 가장 적합한 특별반을 선택하여 6주간 집중 학습을 하게 되며, 이후 2월 말에 열리는 페스티벌 데이에서 학습 결과를 학부모들에게 뽐낼 수 있다.

한편 학년별 영어 글쓰기 기초와 말하기를 완성할 수 있는 '학년별 NEAT 글쓰기 끝장내기' 패키지 회원을 선착순으로 모집 중이다. 교재학습과 원어민의 글쓰기·말하기 첨삭이 결합된 이 프로그램은 학년이 바뀌기 전에 반드시 마스터해야 할 과정을 패키지로 묶어 파격적인 가격으로 제공한다. 문의 1588-0694

/프로젝트기획

결과를 보여주는 겨울특별학기
영어숲 1:1 맞춤 특별반으로 간다

YOON 윤선생에게 물어보세요

영어동요 불러주는 엄마, 좋아요

Q 요즘 엄마들 사이에 주요 화두는 '자기주도학습'과 '엄마표 영어'인데요. 놀이를 통해 재미있게 영어 학습할 수 있는 방법 좀 소개해 주세요. 가급적이면 듣기·말하기·읽기·쓰기 학습 방법을 골고루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주하·34)

A 우선 영어 동요를 불러주거나 들려주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영어 동요는 엄마가 직접 불러주는 게 좋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는 아이에게 친근감을 심어줘 노래를 더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노래가 익숙해질 무렵에는 동요의 내용을 반드시 이해시켜 학습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합니다. 주요 포털사이트의 어린이 코너를 방문하면 움직이는 그림과 함께 영어 동요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영어놀이도 영어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어 트위스터 놀이'의 경우, 단어장을 바닥에 깐 뒤 엄마가 먼저 'Put your foot on apple'이라고 말하면, 아이는 'apple'이 적힌 단어장 위에 섭니다. 본격적으로 게임을 할 때는 양손과 양발을 모두 사용하는데, 이때 몸의 균형을 잃지 않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영어 만화책도 글과 그림이 적절하게 혼합돼 있어 읽기를 싫어하는 아이들에게도 안성맞춤입니다. 말풍선 안에는 실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는 글이 있어 읽기 능력뿐 아니라 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녀 영어교육과 관련해 궁금한 점을 ASK YOON 홈페이지(www.askyoon.com)에 남겨주시면 멘토와 전문가들이 답변을 달아 드립니다.

일쏭달쏭 영어상식

eye shopping은 콩글리시 window shopping 하세요

콩글리시 표현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리가 흔히 Konglish라고 하는 '한국어식 영어'는 영어 어휘 중에서 한국어의 기준을 적용하였거나 한국식의 문법을 사용하여 원래 의미와 다르게 표현한 영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hand phone), 리모컨(rimocon), 아이 쇼핑(eye shopping), 에어컨(aircon), 탤런트(talent), 와이셔츠(Y-shirt) 등이 바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주 익숙하게 사용하는 '콩글리시'입니다. 이들을 올바른 영어 표현으로 살펴볼까요?

- 핸드폰 cellular phone
- 리모컨 remote control
- 아이 쇼핑 window shopping
- 에어컨 air conditioner
- 탤런트 actor, actress
- 와이셔츠 dress shirt

/자료제공 윤선생영어교실(www.yoons.com)

지금 투표하면 보나마나 정권교체

日총선 여론조사 "자민당 과반 압승… 민주당은 100석도 힘들것"

일본 총선(중의원 선거)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민당 압승-민주당 참패 구도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분석 결과 오는 16일 총선에서 자민당이 전체 중의원 의석(480석)의 절반을 크게 웃도는 278~309석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11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집권민주당은 59~73석 일본유신회는 42~57석 공명당은 29~31석, 다함께당은 15~19석 미래당은 8~10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다. 현 의석은 민주당 230석 자민당 118석 미래당 62석 공명당 21석 일본유신회 11석 다함께당 8석이다.

산케이신문도 자민당이 286석을 차지해 민주당(75석)을 압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집권 민주당은 기존 의석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은 물론 100석에도 미달할 것이라는 전망에 충격을 받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100석에 미달할 경우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당 대표직을 사임해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시하라 "200명 이상 납북돼 피살"

한편 이시하라 신타로 일본유신회 대표가 평화헌법(헌법 9조) 때문에 일본인 200명 이상이 북한에 납치 살해됐다고 주장해 파문이 거세다.

1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시하라 대표는 전날 도쿄 시내 거리 연설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 "상황 증거로 얘기하자면 200명 이상의 일본인이 (북한에) 납치돼 살해됐다"고 말했다.

그는 "(전쟁과 군대 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 때문에 동포가 살해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면서 "헌법 9조가 없었다면 일본 정부는 '피랍자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전쟁을 하거나 공격하겠다'라는 자세로 (납북자를) 되찾았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시하라 대표의 발언은 정부의 공식 입장보다 납북자 수 등이 부풀려진데다 구체적 증거를 제시한 것이 아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아베 신조(왼쪽) 일본 자민당 총재가 11일 도쿄에서 중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와 선전 연설을 하고 있다 /신화통신 연합뉴스

"제발 떨어져" 황소의 몸부림 10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내셔널 로데오 대회 참가자가 황소에서 떨어지고 있다 /AP 연합뉴스

'김정은, 타임 올해의 인물 선두' 조작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의 올해의 인물 투표가 조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 경제주간지 포브스와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매셔블은 한 커뮤니티 웹사이트 사용자가 개발한 투표수 조작 프로그램이 타임의 투표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투표 초기 하위권에 머물렀던 김정은 위원장에게 지난 3일 하루 동안 300만 표의 몰표가 쏟아지며 1위를 차지한 점이 조작 가능성을 뒷받침한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30분 현재 539만3474표를 얻어 2위에 오른 미 방송 진행자 존 스튜어트(121만7154표)를 월등히 앞서고 있다.

포브스 등은 "조작 프로그램이 유포되고 있는 웹사이트에는 득표자의 이름 첫 글자들로 'KJUGASCHAMBER'를 만들자는 글이 게재되고 있는데 이 단어가 북한의 비인도적인 정치범 수용소를 비판하는 의미"라며 "특히 이 웹사이트가 2009년에도 투표 조작 프로그램을 유포해 웹사이트 개설자의 이름을 올해의 인물 순위 상위로 끌어올린 전력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박규리기자

베이징 한복판서 인권 시위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처음… 공안 출동했지만 도로만 봉쇄

시진핑(習近平) 체제 출범 이후 처음으로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 인권개선 요구 군중 시위가 열렸다.

명보 등 홍콩 언론에 따르면 수백 명으로 구성된 시위대는 세계 인권의 날인 10일 베이징 시내 량마차오루 인근 유엔(UN)기구 사무실이 밀집한 빌딩 앞에서 집회를 열고 중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을 촉구했다.

일부 참가자들은 '중국에는 인권이 없다'는 내용이 적힌 플래카드를 펼쳐들고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쳤다.

베이징 당국은 대규모 공안 인력을 출동시켜 인근 도로를 봉쇄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했다. 집회 장소 일대의 휴대전화 송·수신도 전면 차단됐다.

당국이 일명 '흑 감옥'으로 불리는 사설 감금시설인 주징좡 구제센터로 참가자들을 이송하기 위한 대형 버스를 준비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홍콩 언론은 공안 당국이 반체제 인권운동가인 후자(胡佳)를 이날 하루 가택 연금했다고 전했다. 유명 여성 인권활동가인 쩡진옌도 자신이 공안의 감시를 받고 있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중국 톈안먼 민주화 운동의 학생 지도자 중 한 명인 왕단은 이와 관련, "시진핑 총서기가 중국 내 인권 문제에 대한 개선 없이 부패를 척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왕단은 "인권 개혁과 부패 척결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라고 힘주어 말했다.

/조선미기자 seonmi@

베이징~선전 고속철 2294km 구간 26일 개통

중국의 수도 베이징과 광둥성 선전을 종단하는 고속철이 26일 완전 개통된다고 후베이성 인터넷 뉴스사이트 징추왕이 11일 보도했다.

베이징~선전 고속철 구간은 길이가 2294km에 달해 중국 최장의 고속철 노선이다.

베이징~선전 고속철은 베이징, 허베이성 스자좡, 허난성 정저우, 후베이성 우한, 광둥성 광저우, 선전을 연결한다.

이 가운데 정저우~우한(2011년 개통), 우한~광저우(2009년 개통), 광저우~선전(2011년 개통) 구간은 이미 운영되고 있다.

베이징~선전 고속철 전 구간 운영이 시작되면 베이징에서 선전까지 9시간 반에 닿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미기자

today metroglobal 지금 클릭! metroseoul.co.kr

홍콩 도심 쓰레기장에 악어 출현

연말 신 대신 술 찾는 멕시코인들

크렘린궁 찾은 성룡 감탄사 연발

metro entertainment

star bag

"김연아 만나고 싶다" 러브콜

할리우드 배우 **휴 잭맨**이 피겨퀸 김연아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그는 10일(현지시각) 자신의 트위터에 "멋진 경기였다. 모두가 당신을 자랑스러워한다! 직접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글을 남기며 9일 열린 NRW 트로피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김연아를 축하했다.

김연아는 이 경기에서 19일 개봉할 잭맨 주연의 영화 '레미제라블'의 삽입곡을 선곡했다.

'나가수'곡 담은 기프트 앨범

박정현이 11일 기프트 앨범을 발표했다.

이번 앨범은 MBC '나는 가수다'에서 선보인 경연곡 '첫인상'과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등이 수록된 석 장의 CD와 8집 티저 및 비공개 영상이 담긴 DVD 한 장으로 꾸려졌다. 23~25일에는 올림픽공원 내 체조경기장에서 김범수와 합동 공연 '그해 겨울'을 펼칠 예정이다.

'런닝맨' X-마스 특집 참여

정형돈이 10일 SBS '런닝맨'의 크리스마스 특집 녹화에 참여했다.

산타 닮은꼴 게스트로 꾸려진 이날 녹화에는 슈퍼주니어의 신동, 개그맨 유담 등이 함께했으며 23일 방송될 예정이다.

한편 부인 한유라씨가 11일 오전 6시께 쌍둥이 딸을 출산해 결혼 3년만에 아빠가 되는 경사를 맞았다.

14-15일 英 첫 단독 콘서트

빅뱅이 영국에서 첫 단독 공연을 개최한다.

월드투어의 일환으로 14~15일 런던 웸블리 아레나에서 열린다. 당초 15일에만 열릴 예정이었지만 예매 시작 2시간 만에 티켓이 매진돼 14일 공연을 추가했다. 웸블리 아레나는 비틀스를 비롯해 아바·비욘세 등 세계적인 팝스타들이 공연한 유서 깊은 장소다.

윤종신 조정치 하림 결성

신치림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윤종신 조정치 하림이 뭉친 프로젝트 그룹 신치림이 가요계와 예능계에서 동시에 주목받고 있다. 이색 공연 '퇴근길 오페라'(27~30일 웃다어다 공연예술센터)로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들은 얼마 전 출연한 MBC '무한도전'을 통해선 단체로 예능감을 발휘해 다방면에서 존재감을 알리는 중이다.

27~30일 이색 공연 '퇴근길 오페라'를 여는 신치림. 왼쪽부터 하림, 조정치, 윤종신

색다른 공연, 남다른 예능끼

퇴근길 오페라 호평 앙코르 무대

'퇴근길 오페라'는 호평에 힘입어 초연 두달 만에 다시 무대에 올리며 살짝 긴장감에 젖어 있었다. 침체된 가요 시장에서 새 활로를 찾아보겠다고 야심차게 시작한 공연이라서다.

이 공연은 신치림이 2월 발표한 첫 번째 앨범 '신치림 에피소드1 - 여행' 수록곡을 토대로 만들었다. 퇴근길 지하철의 소소한 일상을 배경으로 세 멤버가 노래를 부르며 전문 배우 3~4명과 함께 연기를 선보이는 형식이다.

멤버들은 공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다. 더욱이 이번 공연은 수정 사항을 반영하고 레퍼토리를 늘리는 등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선보이기에 기대에 부풀었다.

"가요계가 침체된 원인을 외부가 아닌 제 안에서 찾아보고 싶어서 음악극과 콘서트의 중간 단계인 새 장르의 공연을 구상하게 됐어요. 앞으로 하나의 장르로 자리를 잡았으면 합니다." (하림)

"첫 시도라는 점만으로 스스로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더 이상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도전을 멈추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하던 것만 관성적으로 하면 지겹지 않을까요? 참고로 연기는 다른 두 멤버가 더 잘하더라고요." (윤종신)

이들은 지난 1년간 함께 앨범을 내고 공연을 하면서 새롭게 배운 점이 많다고 털어놨다. 특히 막내 조정치는 "종신 형에게는 가사 보는 방법을, 하림 형에게는 음악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말했다.

'무한도전'의 '못친소' 특집 편에서 길C와 못생긴 외모 대결을 펼치는 조정치(오른쪽)

팀내 '못친소' 꼽는다면 누구?

세 사람의 이름 끝 자를 모아 탄생한 신치림은 '무한도전'의 '못친소(못생긴 친구를 소개합니다) 페스티벌' 특집을 통해 생소한 이름의 그룹을 톡톡히 홍보하기도 했다.

'예능 베테랑'인 윤종신은 꼴찐 '방송 초보' 조정치와 하림까지 의외의 활약을 보여줘서다. 윤종신은 "요샌 나보다 조정치와 하림의 존재감이 더 커진 것 같다"고 질투 섞인 투정을 하면서도 두 멤버를 기특하다는 듯 바라봤다.

그는 "멤버들에게 따로 예능 팁을 준 적은 없다"면서 "어색한 모습이 비호감으로 보이지 않아 다행이다. 빈 틈을 보여준 점이 친근하게 느끼게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예능의 강자로 떠오른 조정치는 "알아보는 사람이 많아졌다"면서 쑥스러워했다. 하림은 "어색했지만 재밌는 경험이었다"고 털어놨다.

그렇다면 이들이 팀 내에서 꼽은 '못친소'는 누굴까. 하림은 "머리카락이 없다"는 이유로, 조정치는 "2년 전 살이 빠지면서 눈이 쑥 들어갔다"는 이유로 서로 자신이 못생겼다고 주장했다.

멤버들 개별 활동 바쁘다 바빠

공연과 예능 출연으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도 개별 활동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월간 윤종신' 프로젝트로 매달 새 노래를 공개하는 윤종신은 엠넷 '슈퍼스타K3' 출신 투개월의 데뷔 음반 제작까지 도맡아 바쁘게 보낸다.

조정치는 1월 새 앨범을 발매하고, 하림은 공연이 끝난 다음날 KBS에서 제작하는 음식 기행 다큐멘터리 촬영차 해외로 떠난다. 세 멤버는 입을 모아 "다음엔 다 함께 음식 기행을 떠나자"고 약속했다.

/탁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사진/서보형(무한도전 화면) 디자인/원지영

CENTER POLE
Swiss Trekking Technology

전설의 주먹 vs 아이언맨3 '4월 스크린 혈투'

내년 국내외 화제작 내달 충돌

2013년 국내외 화제작들의 '맞대결' 구도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강우석 감독의 신작 '전설의 주먹'은 내년 4월 할리우드 액션 블록버스터 '아이언맨 3'와 자존심을 걸고 한판 승부를 펼친다.

이전에도 '강철중: 공공의 적 1-1'과 '이끼' 등으로 할리우드 대작들과 수차례 일합을 겨뤘던 강 감독은 10일 "'전설의 주먹'은 초순에, '아이언맨 3'는 하순에 2주 간격으로 각각 개봉될 예정"이라며 "초반 관객들의 반응 여하에 따라 대결이 이뤄질 수도,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한번 해 볼 만한 상대라고 생각한다"고 밝혀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인기 웹툰을 스크린에 옮긴 '전설의 주먹'은 고교 시절 '싸움짱'이었던 세 친구가 25년 후 TV 리얼리티쇼에서 격돌해 다시 실력을 겨룬다는 내용으로, 황정민·유준상·윤제문이 출연한다.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와 김용화 감독의 '미스터 고'는 극장가 최대 성수기인 여름에 맞붙는다.

'설국열차'는 순 제작비 450억원이, '미스터 고'는 230억원이 각각 투입된 대작으로, 투자·배급사인 CJ엔터테인먼트와 쇼박스㈜미디어플렉스가 야심차게 준비해온 내년 주력 상품이다.

한 영화계 관계자는 "이들 작품 말고도 김지운 감독과 박찬욱 감독의 할리우드 진출작인 '라스트 스탠드'와 '스토커', 할리우드 프랜차이즈물 등 화제작들이 즐비해 내년 영화 시장은 올해만큼이나 뜨거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전설의 주먹
▼아이언맨 3

데뷔 13년 보아 국내 첫 단독 콘서트

보아가 데뷔 13년 만에 국내에서 처음 단독 콘서트를 연다.

보아는 다음달 26일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보아 스페셜 라이브 2013~히어 아이 엠~'이라는 타이틀로 공연한다.

2000년 데뷔한 그는 일본에서 국내 가수로는 최초로 아레나 투어를 여는 등 여러 차례 대규모 공연을 열며 대표적인 라이브형 한류 가수로 실력을 입증했다.

올해 7집 '온리 원'을 발표하며 국내 콘서트에 대한 열망을 드러낸 바 있는 보아는 첫 공연에서 다채로운 음악과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소속사는 "뛰어난 라이브 실력과 무대 매너는 물론 관객과 호흡하는 무대로 최고의 아티스트다운 저력을 확인시킨 바 있는 만큼 이번 단독 콘서트에 대한 국내 팬들의 기대가 무척 대단하다"고 밝혔다.

20일 오후 8시 G마켓에서 티켓 예매를 시작한다. 보아는 현재 SBS '일요일이 좋다-K팝 스타 시즌 2'에 심사위원으로 출연 중이다.

/유순호기자 suno@

톰 크루즈 '잭 리처' 홍보차 내달 10일 내한

할리우드 톱스타 톰 크루즈가 신작 '잭 리처'의 홍보를 위해 내년 1월 10일 한국을 찾는다. (11월 5일자 단독 보도)

지난해 12월 '미션 임파서블: 고스트 프로토콜'에 이어 6번째 내한으로, 극중 상대역인 영국의 차세대 미녀 배우 로자먼드 파이크, 연출자인 크리스토퍼 맥쿼리 감독, 제작자 돈 그레인저 등과 함께 한국 팬들을 만날 계획이다.

특수부대 출신의 방랑자 잭 리처가 악당들을 상대로 일당백의 혈전을 벌이는 내용의 이 영화는 내년 1월 17일 개봉된다.

/조성준기자

생명 나눔으로 마무리하는 2012년

헌혈 송년회 이벤트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여서 더 행복한 연말모임…
따뜻한 나눔으로 보다 특별한 추억을 만드는 건 어떨까요?
추운 날씨로 헌혈 참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로 따뜻한 겨울을 만들어 주세요

참여 방법 연말을 맞이하여 3인 이상 ~ 50인 이하 각종 동호회, 지인 모임 등(모임 제한 없음) 헌혈을 송년 문화로 만들어 주세요.
- 혈액관리본부 공식 SNS(블로그, 페이스북)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모임의 대표가 사전 신청 (모임명, 인원 수, 헌혈 장소, 일시)
- 이벤트 기간 중 대한적십자사 헌혈의집에서 헌혈 참여
- 대표 메일(bloodadmin@redcross.or.kr)로 참여 명단 회신(이름, 생년월일 포함)
- 응모 그룹 중 실제 헌혈에 가장 많이 참여한 순서대로 1~10위 그룹 선정 (3~10인, 11~30인, 31~50인별 10그룹씩 총 30그룹 선정, 헌혈자 수 같은 경우 접수 선착순)

선정 그룹 혜택 그룹 내 실제 헌혈자 수만큼 매칭된 금액을 그룹 명의로 기부
- 기부금액은 해당 그룹의 헌혈 참여자 1인당 1만원씩 책정
- 기부처는 해당 그룹이 원하는 기부처 또는 '희망풍차'에 전달

* 희망풍차 프로그램 : 독거노인, 조손가정 어린이,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4대 취약계층 지원 사업

참여 기간 2012. 12. 7(금) ~ 31(월)

발표 일자 2013. 1. 7(월)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

대한적십자사

차티스손해보험 주식회사

Chartis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되고, 그 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된 경우 (최초 1회한)

기본계약 골절 · 화상 · 장기 및 뇌손상 5백만원 한도 (Active 보험금)
약관에 정한 골절 · 화상 · 장기 및 뇌손상으로 진단 확정시 약관상 지급률에 따라 지급

선택계약 치매간병비 5천만원 (최초 1회한)

부가서비스(간병도우미)
중증치매로 확진되어 치매 간병인을 사용하는 경우 1회 3만원 연 5회 지원

1. 가입연령: 50~70세 2. 보험기간: 전기납 3. 보험료는 상해 1급 기준이며, 성별·연령별로 상이 4. 이 보험은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만기 및 해지환급금이 없음 5. 이 상품은 3년 만기 재가입특약 상품으로, 매 만기 종료일전까지 고객이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최대 90세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재가입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기본계약 (1인당, 단위: 원)			선택계약		
Active 보험금			치매간병비 II (중증치매)		
연령	남자	여자	연령	남자	여자
50~70세	6,270		50세	1,110	2,950
			60세	6,010	14,270
			70세	35,040	71,220

※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상담 후 가입 가능하니 걱정 마시고 전화 주세요!

차티스
큰병 이기는 보험 IV

기본계약 골절 · 화상 · 장기 및 뇌손상 5백만원 한도 (Active 보험금)
약관에 정한 골절 · 화상 · 장기 및 뇌손상으로 진단 확정시 약관상 지급률에 따라 지급

선택계약 암 진단비 2천만원 (최초 1회한) 가입후 91일부터 보장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은 보장금액의 20% 지급)

뇌출중(뇌경색, 뇌내출혈) 진단비 2천만원 (최초 1회한)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2천만원 (최초 1회한)

1. 가입연령: 15~65세 2. 납입기간: 전기납 3. 보험료는 성별, 연령별로 상이 4. 이 보험은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만기 및 해지환급금이 없음 5. 이 상품은 3년 만기 재가입특약 상품으로, 매 만기 종료일전까지 고객이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최대 90세까지 (일부 담보는 80세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재가입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요즘 가계경제 생각해서, 월 17,160원! (40세 남자 기준)

중년, 암만 걱정인가요?

기본계약 (1인당, 단위: 원)			선택계약						
Active 보험금			암 진단비 II			뇌출중 진단비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연령	남자	여자	연령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5~89세	6,270		30세	2,260	7,030	1,200	620	750	270
			40세	6,780	17,570	2,730	890	1,380	530
			50세	17,160	21,390	8,620	6,410	2,260	890

1577-6428

www.chartis.co.kr

CHARTIS

박신양 "무당 잘 어울려요?" 박신양이 내년 1월 개봉 예정인 '박수건달'에서 짙은 아이라인 화장과 작렬하는 붉은 한복의 조폭 출신 박수무당으로 파격적인 변신을 시도해 화제다. 촬영을 앞두고 중요 무형문화재 제82-2호로 서해안 풍어제 및 대동굿 보유자인 김금화 선생에게 굿을 시사받 단독 열의를 보여 "너무 열심히 하면 진짜 신 내린다"는 주위 사람들의 우려를 샀다는 후문이다.

▶ 창원 구청으로 살아도 되겠네요. /조성준기자

이시영, 태극마크 획득 실패

배우 이시영이 복싱 태극마크 획득에 실패했다.

이시영은 11일 열린 제66회 전국 아마추어복싱선수권대회 겸 2013 복싱 국가대표선수 1차 선발대회 여자 48kg급 결승에서 전남 대표 박초롱(전남기술과학고)에게 4-10 판정패했다.

그는 경기 후 "너무 긴장한 탓에 제대로 경기를 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며 "하지만 복서로서 도전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람기자

시크릿, 당분간 못 본다

차 교통사고로 활동 '올스톱'
징거 골절… 다른 멤버 타박상

여성그룹 시크릿이 대형 사고를 모면했다.

이들을 태운 승합차는 11일 오전 2시께 일정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을 달리던 중 성산대교 남단 커브길에서 빙판에 미끄러져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차량이 전복될 정도로 아찔한 순간이었지만 커브길이라 속도를 줄이면서 다행히 큰 사고를 면했다.

사고 직후 멤버들은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며, 징거는 갈비뼈가 골절되고 폐에 멍이 발견돼 입원 조치됐다. 소속사 관계자는 "갈비뼈에 실금이 가 회복하기까지 3~4주가 걸릴 것으로 전해 들었다. 폐에도 멍이 들긴 했지만 피가 차거나 하는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고 전했다.

그러나 징거는 이후 추가적으로 이상 증세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동안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것이라고 소속사는 밝혔다.

나머지 멤버인 전효성, 송지은, 한선화는 정밀검사 결과 경미한 타박상으로 진단받고 퇴원했다. 운전한 매니저는 경추와 요추에 타박상을 입었으나 골절이 없어 함께 귀가했다.

이번 사고로 시크릿의 활동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들은 4일 신곡 '토크 댓'을 발표하고 7일 방송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집중적인 신곡 홍보 기간인 것은 물론 연말 각종 시상식을 앞두고 특별 무대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멤버들의 건강을 우려해 각종 시상식에 불참할 예정이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윤형빈·정경미 내년 봄 드디어 결혼

윤형빈이 고정 출연 중인 KBS2 '해피선데이-남자의 자격'을 통해 정경미에게 청혼했다.

그는 11일 진행된 녹화에서 여자친구인 정경미에게 프로포즈하고 내년 봄 결혼을 약속했다.

청혼 이벤트는 제작진의 연출 없이 윤형빈이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를 마무리하며 미처 하지 못한 일'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녹화는 30일 방영될 예정이다.

윤형빈-정경미 커플은 2005년 KBS 공채 개그맨 20기로 함께 입사해 이듬해 연인으로 발전했다.

그동안 수차례 결혼설에 휩싸여 왔으나 번번이 '좋은 때'를 기약해 온 이들은 윤형빈의 청혼으로 7년 열애의 결실을 맺게 됐다.

/김보람기자

가슴쓰림과 소화불량을 동시에 완화[1]

- 타는듯한 복부와 가슴쓰림에 빠르게 느껴지는 효과[2]
- 가슴쓰림을 유발하는 'Acid pocket'을 중화[3]
- 고유의 물리적 방어 층 형성[4]
- 4시간* 지속 효과[1]

Reckitt Benckiser

피로·추위 겹친 12월 '입병' 조심

입속 조직괴사 '구내염' 방치땐 만성화… 전문치료제 '알보칠' 도움

구내염을 앓는 이들이 매년 크게 늘어나는 중이다. 흔히 '입병'으로 불리는 구내염은 피로감과 비타민 결핍, 면역체계 약화 등으로 나타나기 쉬운 질병이다. 대부분 3~10mm 정도의 크기로 환부가 작은 데다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의 질병은 아니라 무시하고 넘어가기 쉽다. 하지만 방치할 경우 자칫 만성화되거나 환부 범위가 늘어날 위험이 높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구내염 환자가 최근 5년간 약 21.8%, 매년 평균 5.1%가량 꾸준히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무려 100만 명에 가까운 98만9000명이 구내염으로 병원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내염 환자 증가의 원인 중 하나는 무더위와 강추위의 반복으로 약해지는 면역력이다. 실제로 매년 여름 겨울철에 구내염 환자 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로감 역시 구내염 환자 증가의 원인 중 하나다. 아이디 치과 임수진 원장은 "최근 구내염 환자 증가는 점점 더 피로해지는 생활환경도 반영한다"며 "구내염으로 내원하는 환자 대부분이 시간에 쫓기는 수험생이나 직장인들이었다"고 설명했다.

구내염 발생과 재발을 막고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구내염 전문 치료제를 활용한 조기 관리다. 구내염 전문 치료제를 활용해 증상 발생 시 바로 치료해주면 환부를 조기에 케어할 수 있어 범위와 증상이 그게 약해진다.

◆ 환부 조직 살균·치유 효과

특히 태평양제약 '알보칠'은 환부에 간단히 바르기만 하면 변성 조직을 치료해주는 전문 구내염 치료제다. 정상 조직에는 아무 영향 없이 환부의 괴사된 조직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선택적 약리 작용을 통해 환부를 관리해준다. 염증에 대한 원인균을 직접 제거하는 살균 효과에 더해 상처를 치유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구내염이 발병한 경우 음식 섭취 시에도 주의해야 한다. 맵거나 짠 음식, 뜨겁고 딱딱한 음식은 환부에 자극을 주고 통증을 악화시키기 쉬우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이밖에 구내염을 막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영양 공급과 수면 등을 통해 건강한 신체 리듬을 되찾는 것이 가장 좋다.

평소 구내염 예방을 위해서는 양치 시 꼼꼼한 관리도 중요하다. 미세한 세균을 깨끗하게 씻겨내 청결한 구강 환경을 조성해주면 구내염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

/[illegible]기자

독일 특허성분 원료… 정상조직에 무해

알보칠은 독일 나이코메드(NYCOMED)사에서 개발된 특허 성분 폴리크레줄렌을 원료로 태평양제약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이다.

올해 구내염 치료제 중 가장 높은 판매액을 기록한(2012년 ims-data 기준) 소비자들의 만족도와 신뢰가 높은 치료제다.

일반 소비자가 약국에서 직접 구매해 구내염, 아구창에 사용할 수 있는 5ml 제품 외에 대용량으로 병원에 납품되는 100ml는 이비인후과 등에서 실제 입병 치료와 외과 소독, 지혈에도 사용되고 있다. 알보칠의 주기능은 환부의 살균과 치유다. 정상 피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변성되거나 괴사된 조직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장점이다. 이 과정에서 환부의 신생 조직 형성을 촉진해 손상 조직의 재생 효과도 함께 제공한다.

남산 키싱트리에 'CJ도너스캠프 모금함'

CJ그룹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CJ도너스캠프가 11일 남산 N서울타워에서 성금 모금, 미니 콘서트, 바자회 개최 등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CJ도너스캠프는 이날 남산 N서울타워 광장 내 '키싱트리(Kissing Tree)'에 모금함을 설치하고 기부액만큼 CJ나눔재단이 같은 금액을 출연하는 매칭그랜트 방식을 통해 기부금을 두 배로 키워 전국 공부방 교육 지원 활동에 사용할 계획이다. /전효순기자 hojeon@

키싱트리 앞에서 CJ도너스캠프 나누 캐릭터와 어린이 모델이 기부 행사를 알리고 있는 모습

반찬 필요없는 '비락 컵밥' 끓는물 붓고 3분이면 한끼

'햇반+컵라면' 장점… 저칼로리·2200원 '인기'

식혜로 유명한 비락이 최근 신제품 '비락 컵밥' 2종을 선보였다. 끓는 물을 붓고 전자레인지에 3분만 돌리면 쉽게 먹을 수 있는 식사 대용 제품이다.

한 끼 식사로 든든하게 먹을 수 있게 양을 200g 이상으로 맞추면서 저칼로리(345kcal)로 개발됐다. 국내산 쌀을 사용했으며 기름에 튀기지 않고 열풍 건조해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했다.

비락 마케팅팀 관계자는 "반찬은 없지만 편리한 햇반과 나트륨은 높지만 맛 좋은 컵라면의 장점을 담은 아이디어 상품"이라며 "기존에 없는 신규 카테고리를 개척한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가격도 저렴하게 낮췄다.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도시락의 평균 가격이 2500~3500원인 점을 고려해 소비자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게 2200원으로 책정했다.

조리 방법도 컵라면처럼 간단하다. 끓는 물을 붓고 건조밥과 건더기 스프를 넣은 다음 스푼으로 저어 전자레인지에 넣는 30초간 데우면 집에서 먹는 밥처럼 발지고 우수한 식감과 맛을 낸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편의점과 대형마트에서 최근 판매를 시작했다.

비락의 오경환 마케팅부문장은 "현재 물량 재고가 없을 정도로 소비자 반응이 좋고 수출 요청도 쇄도해 이달 중 중국에 판매할 예정"이라며 "내년에는 제품 라인을 강화해 1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효순기자

제주신라호텔 '위버힐링의 천국'

새해 낭만여행 패키지

눈꽃 트레킹·스노슈잉 매력
밤엔 비키니 입고 윈터스파
비치하우스 밤바다 감상도
대한항공 2인 왕복권 제공

제주의 겨울 바다가 아름다운 연말이다. 낮에는 그림 같은 설경에 빠지고, 저녁이 되면 제주의 푸른 밤 속으로 빨려 들어갈 환상적인 여행이 제주신라호텔에서 시작된다. 겨울방학을 맞아 제주신라호텔이 겨울 캠핑과 야외 온천, 겨울 레저를 만끽할 거리를 준비하고 가족 여행객을 기다리고 있다.

제주신라호텔은 체크인하는 순간부터 럭셔리한 여정을 느낄 수 있다. 프론트 데스크에 줄 서서 체크인하지 않고 올레바에서 호텔 직원이 친절히 설명을 곁들여 편하다.

낮에는 레저전문직원인 GAO와 한라산 눈꽃 트레킹을 즐길 수 있다. 흰 눈이 쌓인 오름과 들판을 스노 슈즈를 신고 걷는 '스노 슈잉'도 인기다.

저녁이 되면 몽환적이고 따뜻한 제주의 밤이 기다린다. 사계절 온수 풀, 자쿠지, 핀란드 사우나 등으로 꾸민 윈터 스파존에서 쿠바와 브라질 공연팀의 화려한 무대를 감상하며 해외 럭셔리 온천에 온 듯 수영과 스파를 즐길 수 있다. 12~1월에도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는 곳이 제주신라호텔의 윈터 스파 존이다.

호텔 숲비정원 내 바다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겨울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프라이빗 비치 하우스가 있다. 밤이 되면 와인과 함께 나이트 비치를 감상할 수 있는 로맨틱 플레이스 선셋 바 & 카페로 변신한다.

또한 제주신라호텔은 가족 고객을 위해 이달부터 짐보리 '키즈 아일랜드'에 이어 아이들이 교사와 함께 신체활동을 하며 놀 수 있는 '키즈 GX룸'을 새롭게 선보이고 있다.

제주신라호텔은 겨울 여행의 매력을 모두 만끽할 '위버힐링 패키지'를 내놨다. 한라산 눈꽃 트레킹과 스노 슈잉 중 하나를 체험할 수 있고, 2박 이상 투숙하면 제주신라 호텔의 핫 아이템인 캠핑 디너를 무료(2인)로 즐길 수 있다. 윈터 스파 존 무료 이용, 프라이빗 비치 하우스 무료 이용, 객실 인터넷 무료, 조식 2인 등의 혜택이 따라붙는다.

또 이달 15일까지 내년 1월 2·3·13·14·15일 중 2박을 예약하면 대한항공 2인왕복 항공권을 제공한다. 문의: 1588-1142

/전효순기자

'K' 사진찍어 응모하고 캘리포니아 여행 가요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케이스위스가 오는 22일까지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참여하는 '메이크 어 케이' 사진 응모 이벤트를 진행한다.

케이스위스 브랜드의 본고장인 캘리포니아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여행권을 증정하는 글로벌 이벤트다. 모바일 앱 인스타그램을 이용해 케이스위스 브랜드의 첫 번째 철자인 'K'를 손 모양으로 만들거나 일상생활 속에서 K모양을 찾는 등 독창적인 K 모형의 사진을 찍어 참여하면 된다.

이벤트 기간 매주 1명의 '베스트 K'를 선정해 총 4명에게 케이스위스 운동화를 증정한다. 최종 우승자 1명에게는 캘리포니아 왕복항공권(2명)과 산타모니카 페어몬트호텔 3박 숙박권 등이 포함된 캘리포니아 여행 패키지를 제공한다. 문의: www.facebook.com/kswisskorea

피자헛 종합세트 뚜껑열면 "와우!"

연말파티족 위한 센스메뉴 '와우박스'… 피자·파스타·치킨·포테이토로 구성

한국 피자헛이 연말 분위기를 돋우는 센스 있는 메뉴인 '와우박스'를 새롭게 내놨다. 애피타이저부터 피자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어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모임에 제격이다.

와우박스는 금직한 박스에 피자와 파스타, 치킨, 포테이토를 담은 제품으로 3초에 1박스씩 판매되며 피자헛 대표 메뉴로 자리 잡았다. 요즘 같은 불황 속에서 주머니 부담을 덜어주는 가격과 다양한 메뉴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편의성, 치킨과 포테이토를 곁들인 차별화된 맛과 메뉴 구성으로 인기몰이 중이다.

한국 피자헛 마케팅팀 조윤상 이사는 "피자와 함께 여러 메뉴를 한 번에 맛있고 간편하게 즐기고 싶어하는 소비자 트렌드를 제품 마케팅에 적극 반영해 와우박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 25가지 피자로 나만의 와우박스!

피자헛은 최근 메뉴 구성을 강화한 새로운 와우박스를 선보여 주목받고 있다. 더스페셜 피자는 물론 크런치골드, 리치골드, 치즈바이트, 치즈크러스트 프리미엄 피자를 포함한 총 25가지 피자 중 취향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피자 선택은 온라인 주문 시 가능하며 가격은 피자에 따라 2만7900원부터 3만7900원까지 다양하다.

◆ 맛과 풍미 살린 사이드 메뉴

새로워진 와우박스는 매콤한 맛을 살린 골든 스파이시 윙 치킨과 바삭함을 더한 케이준 포테이토가 함께 제공된다.

골든 스파이시 윙은 매콤한 양념에 재운 닭 날개를 오븐에 노릇노릇하게 구워낸 새로운 스타일의 치킨 메뉴. 케이준 포테이토는 반달 모양의 감자에 케이준 양념을 더해 바삭하게 구워 매콤하고 고소하게 즐길 수 있다. 함께 제공되는 풍부한 마늘 맛의 갈릭 브라운소스를 곁들이면 맛이 더 살아난다.

모짜렐라치즈와 볼로네즈 소스가 어우러진 리치 치즈 스파게티는 누구나 좋아하는 오븐 파스타 최고의 인기 메뉴다.

◆ 와우박스 더 맛있게 즐기는 법

다양한 메뉴가 한데 모인 피자헛 와우박스는 연말 모임에 빠질 수 없는 와인이나 맥주와도 환상의 짝꿍이다.

더스페셜 피자는 쫄깃한 도우와 깔끔하고 담백한 토핑으로 어떤 종류의 주류와도 부담 없어 즐기기 좋다. 모짜렐라 치즈와 콜라비어 크림치즈가 듬뿍 올려진 치즈링 피자는 와인과 마시면 더욱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는 메뉴. 매콤한 맛이 입맛을 당기는 골든 스파이시 윙과 케이준 포테이토는 시원한 맥주와 곁들여야 제 맛이다.

/전효순기자

다시 '시험대' 오른 한국야구

이선호의 베이스볼 카페

류현진은 미국에서도 괴물이었다. 대리안 스콧 보라스는 10일 오전 LA 다저스와의 벼랑 끝 담판을 벌여 6년 총액 3600만 달러의 계약을 성사시켰다. 대박 옵션 1000만 달러를 포함하면 최대 4200만 달러의 가치이다.

류현진은 메이저리그 스카우트 사이에서 2~3선발급 투수로 평가받았다. 그 평가가 이번 계약에서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다저스는 전날 자유계약선수(FA) 최대어 투수 잭 그레인키를 1억4700만달러를 투자해 잡았고 다음날 류현진에게 파란 유니폼을 입혔다.

그만큼 류현진에 대한 확고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LA는 박찬호, 서재응, 최희섭에 이어 류현진을 잡아 한인과 구단임을 입증했다. 서부지역 한인 마케팅의 일환일 것이다. 덕택에 류현진은 프로출신 첫 빅리그 직행이라는 새 역사를 썼다.

류현진의 LA행은 다시 메이저리그가 국내 야구 팬들에게 다가왔음을 알리는 것이다. 타지 추신수가 미국 무대에서 뛰고 있지만 류현진만큼의 인기와 관심을 받지 못했다. 류현진은 데뷔부터 괴물 소리를 들었고 7년 동안 국내 리그를 지배했다. 다르빗슈 유(텍사스)가 일본의 에이스라면 류현진은 한국의 에이스였다.

그의 선발 등판은 벌써부터 모두들 손꼽아 기다리는 빅 이벤트다. 내년 2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스프링캠프, 시범 경기 그리고 대망의 정규 시즌 첫 등판까지 이슈를 몰고 다닐 것이다. 당장 계약과 함께 류현진 기사는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박찬호 시절처럼 류현진의 등판은 스포츠전문 채널을 통해 안방으로 생중계된다.

한국 야구는 700만 관중을 넘었고 이제 800만~1000만 관중을 향하고 있다. 2006년을 기점으로 인기를 되찾았고 재물도 강해졌다. 그러나 박찬호의 노쇠화와 맞물려 메이저리그의 인기가 한풀 꺾인 시기였다. 이제는 류현진이 버티는 메이저리그와 대결을 벌여야 한다.

류현진 없는 한국 야구를 생각해보자. 당장 내년 3월 열리는 3회 WBC 대회가 문제다. 에이스 류현진은 참가하지 못해 전력이 급감했다. 아울러 에이스가 사라진 한화의 성적과 경기력도 시험대에 오른다. 전력 치기 크면 재미는 없고 흥행도 시들해진다. 한국 야구는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OSEN 야구전문기자

영광의 얼굴들 11일 열린 2012 절도프로야구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시계방향부터 강정호(유격수)·박용택(외야수)·박병호(1루수)·강민호(포수)·이승엽(지명타자)·손아섭(외야수)·이용규(외야수)·장원삼(투수)·최정(3루수)·서건창(2루수). /뉴시스

2015년 '10구단' 된다

KBO 이사회 만장일치 창단 승인… 선수협 "환영"

프로야구 제10구단 창단이 승인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1일 이사회를 열고 10구단 창단을 추진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사회는 "현재 우리나라 야구 환경에 10구단을 창단하는 데 필요충분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홀수 구단 체제로 인한 리그 운영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야구계와 팬들의 염원을 고려해 대승적 차원에서 10구단을 조기에 창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프로야구는 내년에 NC다이노스가 1군 리그에 합류하면서 당분간 9개 구단 체제로 운영된다. KBO는 앞으로 신규 회원 가입 신청을 받은 후 평가위원회를 구성, 참가 기업과 도시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이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상정해 승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현재 경기도 수원시와 전북도가 KBO에 유치의향서를 제출한 상태다. 수원시는 KT와 손을 잡았고 전북도는 부영그룹과 함께 10구단 창단을 추진 중이다.

양해영 KBO 사무총장은 "NC의 행우를 봤을 때 10구단은 2015년 1군에 진입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비활동기간 팀 훈련 거부는 물론 골든글러브 시상식, WBC 불참 등을 선언하며 KBO를 압박했던 프로야구선수협회는 "KBO 이사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골든글러브 시상식은 물론 10구단 정착을 위해 KBO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류현진 첫해 연봉 27억원

다저스 입단식… "박찬호 선배 최다승 기록 깨겠다"

류현진(가운데)이 11일 열린 LA 다저스 공식 입단식에서 다저스의 유니폼을 입고 구단주인 매직존슨(오른쪽) 등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류현진(25)이 11일 LA 다저스 홈구장인 LA 다저스타디움에서 공식 입단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NBA 스타 플레이어 출신인 매직 존슨 공동 구단주가 참여해 손수 류현진에게 '다저블루' 상의를 입혀줬다.

또 한국인 첫 메이저리거이자 다저스의 간판 투수로 박찬호가 활약한 당시 지휘봉을 잡았던 토미 라소다 전 감독도 참석했다.

등번호 99번이 선명한 다저스 유니폼을 입은 류현진은 "박찬호 선배가 세운 메이저리그 아시아 선수 최다승 기록(124승)을 깨겠다"며 "첫 시즌에는 두자릿수 승수와 2점대 방어율이 목표"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다저스와 6년간 3600만 달러(약 390억원)를 받기로 한 류현진의 세부적인 계약 내용도 공개됐다. 계약금 500만 달러를 먼저 일시불로 수령한 뒤 나머지 3100만 달러는 해마다 다르게 나눠서 받는다.

내년에는 250만 달러(27억원)를 받고, 2014년 350만 달러(37억7000만원), 2015년 400만 달러(43억원), 2016년부터 3년간 700만 달러(75억4000만원)를 받는 등 매년 연봉이 올라가는 형식이다.

또 투구 이닝에 따라 해마다 보너스로 최대 100만 달러를 챙길 수 있다. 170이닝을 넘기면 25만 달러, 10이닝을 경신할 때마다 25만 달러가 늘어 200이닝을 돌파하면 최대 100만 달러를 받는 조건이다. 류현진은 한국에서 연평균 181이닝을 던졌고 2006~2007년 2년 연속 200이닝을 넘긴 바 있다.

투수 최고 영예인 사이영상의 후보로 올라가면 득표 순위에 따라 보너스를 받는 내용도 포함됐다.

류현진은 11일 한국으로 돌아가 비자 발급 등 각종 행정절차를 밟은 뒤 내년 1월께 미국으로 돌아와 본격적인 시즌 준비에 착수한다. 개인 훈련을 하다 2월 13일 시작하는 다저스 스프링캠프에 합류한다.

/정용훈기자

전국민 영어회화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통문장 학습법의 창시자 [illegible]의 4단계 기초회화 훈련법

Day 14 How old are you? 나이

영어 통문장 익히기

▶ 우리말 먼저 보고 영어로 0.5초 내로 말하기 도전!

206. 제가 막내예요.
207. 제가 몇 살인지 맞혀보세요.
208. 제가 보기에 당신은 23살쯤인 것 같아요.
209. 저는 지난 생일에 30살이 되었어요.
210. 저는 다음주 화요일이면 21살이 될 거예요.

▶ 이제 두 번 큰 소리로 말하고 외워보세요.

206 I'm the youngest
207 Guess how old I am
208 I'd say you're about twenty three
209 I turned thirty on my last birthday
210 I'm going to be twenty one next Tuesday

반복 훈련으로 자동 암기하기

▶ 짧은 대화 훈련

206~210 문장 중에서 우리말에 해당하는 표현을 찾아 말해보세요.

A I 30살이 되었어요 on my last birthday.
B Wow, really?

정답 turned thirty

▶ 패턴 훈련

각 단어를 넣어 말해보세요.

1 Guess how old [I am / my friend is]

2 I'd say you're [about / almost] 23. Am I right?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1
본 지면은 New English 900 Vol.1의 [illegible]

ETS TOEIC Reading Prep Book

01 _______ Le Deux cookware, Wev cookware is dishwasher safe and can be used in microwave and convection ovens.
(A) Unlike (B) Without
(C) Still (D) For

02 The city has experienced an unusually large amount of rainfall this year, _______ it difficult for road projects to be completed on time.
(A) made (B) make
(C) makes (D) making

01. [illegible]
해설 [illegible]
어휘 dishwasher-safe [illegible] convection oven [illegible] without [illegible]
정답 (A) Unlike

02. [illegible]
해설 [illegible] has experienced [illegible] (D) making [illegible]
어휘 experience [illegible] rainfall [illegible] complete [illegible] on time [illegible]
정답 (D) making

ETS TOEIC Speaking Prep Book

Part 3 듣고, 질문에 답하기

How 의문문

[illegible]

Q. How often do you clean your house or apartment? [illegible]
A. I clean my house once a week. [illegible]
twice a week [illegible]
every two days [illegible]

Q. How many times do you eat out? [illegible]
A. I eat out almost every day. [illegible]
once or twice a week. [illegible]
more than three times a week. [illegible]

Q. How do you go to school or work? [illegible]
A. I go to school by bus. [illegible]
by subway. [illegible]
by car. [illegible]